〔보 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26, No. 9/10 (2002) p.1308~1319

현대 스포츠패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rn Sport-Fashion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임 은 안 · 채 금 석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un-An Lim · Keum-Seok Chae

(2001. 8. 1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is to analyze the aesthetics characteristics of our modern sports fashion, and thereby, discuss them in the light of the overall mentality or the 20th century, and thus, present the conditions or sports fashion design meeting modern people's divers aesthetics values and desired.

Modern sports fashion styles can be categorized into futurist sports style, erotic sports style and American street sports style. And the 20th century mentality characterized by changes of lifestyle, identity and aspiration has influenced the aesthetic features of such sports fashion styles, which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futurist sports style applies the functional items and details of active sportswear to design, while heralding a positive and hopeful message of technology and future by using the material of hi-tech functions and senses. This sports style was affected much by shift from social status, attraction and wealth to demonstration of state-of-the-art science, pursuit of functionality in terms of shapes and materials, convenience through free combinations of sportswear items or design elements.

Second, the erotic sports style based on minimalism attempted to express the erotic body beauty indirectly by exposing some parts of body or using the material pressed against the body. This sports style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changes of sexual identity such as neutral sexualism, bi-sexualism and homo-sexualism.

Lastly, the American street sports style was born from black Americans' sports and dances. This spors style pursues "youth" beyond TPO concept. As mass media and commercial sports developed, the young generation copied sports stars' uniforms or fashions to share honor, wealth and youth with them. In sort, the American street sports style was affected much by the so-called "heroism". Such a changed object of aspiration influence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American street sports style directly.

Key words: modern sports fashion, futurist sports style, erotic sports style, American street sports style, conversion of the 20th mentality; 현대 스포츠패션, 미래파적 스포츠 스타일, 관능적 스포츠 스타일,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포츠 스타일, 20세기 의식전환

I. 서 론

유희적 놀이와 제전에서 발생한 스포츠는 19세기말 근대적 골격이 마련된 이래로 부의 확산, 여가의 증가, 젊음 지향, 여성해방운동 등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더욱 다양화, 전문화, 대중화됨으로써 현대의 개인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포츠의 영향력이 확장됨에 따라 스포츠웨어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서유럽국가들의 경우 전체 의복구입비 중 정장류의 비중이 1953년 33%에서 1984년 17%로 감소한 반면 캐주얼의류를 포함한 스포츠웨어는 9%에서 30%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1)]

또한 스포츠웨어가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교모임과 같은 특별한 모임에까지 착용되는 등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패션계에서 스포츠웨어의 아이템을 도입하거나 스포츠웨어의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와 이미지를 응용한 "스포츠패션"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웨어 대한 선행연구로는 특정 스포츠웨어에 적합한 디자인이나 소재개발에 관한 연구[2], 스포츠웨어의 발생과 변천에 대한 사적 고찰[3], 그리고 특정시기의 스포티브 패션이나 스포츠 스타일에 관한 연구[4] 등으로 현대 패션에서 스포츠웨어가 패션성을 지니게 된 배경과 요인,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패션의 미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스포츠웨어에서 출발하여 패션성을 갖게된 스포츠패션의 발생요인을 사회적 배경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패션의 스타일을 미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며, 그러한 스포츠패션이 나타나게 된 요인을 20세기의 전반적인 의식전환과 관련하여 고찰함으로써 현대인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패션과 스포츠에 관한 국내외의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그 외 사회 문화사, 예술사 등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복식이 시각적 대상임을 고려하여 사적고찰에 관련된 시각자료를 제외한 스포츠패션에 관한 시각자료는 1980년부터 1999년까지의 정기간행물과 문헌을 중심으로 자료를 추출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스포츠패션의 개념과 전개과정

1. 스포츠패션의 개념

스포츠웨어의 현대적인 개념은 19세기말 미국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5] 크게 골프, 수영, 테니스 등의 스포츠 활동을 위한 "액티브 스포츠웨어(active sportswear)"와 1920년대 스포츠관람을 위해 입기 시작하여 여가복 개념으로 발전한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spectator sportswear)"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스포츠웨어에 근간을 두고 패션성을 부여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였다.[6] "스포티브 룩(sportive look)"은 63년 추동 오뜨 꾸뛰르(haute couture)에서 방한복 형태를 칭한 것[7]으로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을 위한 형태, 소재, 디테일, 액서사리 등을 미적인 디자인의 요소로 전환하여 응용한 정장(正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능적인 단순함을 특징으로 하고 단추나 포켓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8] 그리고 "스포츠 룩(sports look)"은 70년대 중반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prêt-á-porter collection)에서 카스텔바작(Castelbajac)이 컨셉을 설명하시면서 등장한 개념이며 액티브 스포츠웨어를 그대로 타운 웨어(town wear)화한 형태[9]로 스포티브 룩과 구별되고 애슬래틱 스포츠 룩(athletic sports look)이라고도 한다. 스키웨어, 조깅수트, 테니스웨어, 다운 베스트, 다운 재킷, 아노락 등이 일반적이다.[10] 이밖에 특정한 하나의 스포츠웨어를 응용한 스포티브 룩이나 스포츠 룩과는 달리 다른 여러 종류의 액티브 스포츠웨어를 임의대로 조합하여 착용하는 스타일이 1980년대 이후 유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스포츠패션"라는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2. 스포츠패션 발생의 사회적 배경

스포츠패션이 생겨나고 대중적으로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친 여러 사회적 배경 중 대표적인 요인들로써 여가문화의 발달, 여성해방운동, 기성복산업의 발전을 들 수 있다.

먼저, 1950년대 데이비드 라이스만(David Reisman)을 비롯한 사회학자들은 '레져(leisure), 레크레이션(recreation), 관람문화(spectation)'를 세계 속의 미국의 주요 이미지로 꼽을[11] 정도로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여가문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어갔다. 또한 유급휴가제로 인해 대중들이 스포츠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포츠웨어가 캐주얼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스포츠패션에 대해 생각하고 시도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패션창조에 있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었다.

다음으로, 시몽 드 보봐르(Simone De Beauvior)는 「The second sex」에서 "남성에게 열등감을 가장 적게 느끼는 여성들은 긍정적으로 자신의 경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여성운동선수들이다"라고 언급하였고,

여성 운동선수들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12] 앙드레 꾸레쥬(André Courrèges)는 60년대 플란넬에서 레이스까지 다양한 소재의 바지를 선보이면서 "활동적이고, 빨리 움직이며 일하는, 항상 젊고 또한 지성적인 옷을 입기에 충분히 근대적인 여성을 위해 디자인한다"라고 여성해방운동에 응원을 보냈다.[13] 1960년대 이후 여성해방운동을 통해 여성고용의 확대와 경제력을 확보한 여성들은 스포츠와 레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스포츠 관련 상품들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1940년대 후반과 50년대 미국 기성복업계는 스포츠웨어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스포츠패션을 선보이면서 유럽과 다른 독립적인 패션 산업체계를 확립해 나갔고, 소매상들도 점점 더 스포츠웨어로 판매영역을 전환하게 되었다.[14] 이후 미국의 기성복산업은 스포츠 산업과의 연계되어 국제패션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 장인기술, 고급스러움, 섬세함을 중시하던 파리의 디자이너들은[15] 급성장하는 미국의 기성복 산업과 막강한 소비계층인 젊은 세대들에게 자극을 받아 기성복의 중요성과 의미를 재인식하였다. 1959년 피에르 카르뎅(pierre Cardin)이 그의 이름을 붙여 상품을 대량생산한 이후로 파리의 프레타 포르테((prêt-á-porter: 고급기성복)는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70년대 프레타 포르테에서 스포츠 룩(sports look)이 선보인 이래 스포츠패션은 패션계의 주된 테마 중 하나로 등장하였다.

Ⅲ. 스포츠패션 경향으로의 의식전환 요인

스포츠패션이 확산되는 경향과 연관된 20세기 여러 의식전환들 중 의복가치관 · 성 정체성 · 동경대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의복가치관의 변화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전 분야에 걸친 발전과 개혁으로 인해 개인의 생활양식과 개인의 의복에 대한 태도 즉, 의복가치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 과시성

20세기 초 부유층의 골프, 승마, 크로켓, 요트와 같은 고급 스포츠는 경제적 · 문화적 여유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유한계층의 과시적 소비문화였으며,[16] 1차 대전 이후 신분과 부의 노골적인 과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고급의류 및 보석류 등을 대신하여 스포츠웨어를 구별짓기 기호로 사용하였다. 스포츠웨어가 기능성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유사한 스타일 속에서 차이를 인식시키기 위해 안쪽에 감춰져 있던 유명상표를 드러내게 되었다.[17] 테니스 영웅 르네 라꼬스떼(Rene Lacoste)가 1933년 최초로 셔츠 왼쪽 가슴에 브랜드 마크인 악어를 수놓은 이후로 많은 스포츠웨어의 브랜드 마크가 외부에 부착되었고 새로운 과시적 수단이 되었다.[18] 랄프로렌(Ralph Lauren)은 브랜드 마크로 폴로(polo)를 선택하고 광고를 통해 경제력을 당당하고 클래식하게 보이도록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대중매체에서 스포츠의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그의 과시적 측면도 거부감 없이 수용되어 스포츠웨어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들이 활발히 제시되어 있다.

신분과 부의 과시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스포츠패션은 20세기 말 전자기술,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의 기계문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즉 네그로폰테(Negrofonte)가 「Being Digital」에서 밝힌 것처럼 "돈에서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서 시간과 공간,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하나의 통합체"를 추구하는 사이버 컬처(cyber culture)가 형성되고[19] 이러한 기계문명의 공유를 복식을 통해 과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새로운 세대인 와이-제너레이션(Y-generation[20])은 인간의 동작을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스포츠가 결합한 사이버-스포츠(cyber-sport)게임을 즐기고 게임 캐릭터들의 복식 및 스타일을 모방 혹은 연출하며 기성세대문화와 구분되기를 원한다. 그들이 선택한 기능성과 테크놀로지적 이미지를 지닌 스포츠패션들은 이러한 그들의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2) 기능성

산업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복식의 기능성과 활동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대중매체에서 건강에

[그림 1] 컴퓨터 회로를 프린트화한 비닐소재 바지와 후드를 변형한 코트「ELLE」, 1997, p.226

대한 경각심을 자극하여 스포츠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스포츠웨어의 구조적 단순성과 기능성을 디자인 요소로 응용하거나 스포츠웨어를 일상복으로 수용한 스포츠패션이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1910년 이후 스키 재킷, 아웃도어 웨어(outdoor wear)의 기능적 여밈 장치인 지퍼(zipper)는 1933년 스끼야빠렐리(Schiaparelli)가 하이 패션에서 화려한 색상의 지퍼를 디테일로 사용한 이후스포츠패션의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다. 그리고 수영복, 스키팬츠에 사용되던 신축성이 뛰어난 라텍스 섬유는 다른 섬유와 혼방되어 일상복의 활동성을 증대시켰고, 인체에 밀착되는 독특한 외관으로 각광을 받았다. 20세기 후반 방수방풍가공 직물, 우주복소재로 사용된 고어텍스와 케블라, 표면마찰이 거의 없는 PTTE섬유, 빛을 반사하는 전반사섬유 등 액티브 스포츠웨어를 위해 개발된 소재들은 기능성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 이미지 때문에 스포츠패션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3) 편의성

30년대 '관람 스포츠'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등장한 '관람용 스포츠웨어(spectator sportswear)'는 정장과 캐주얼 사이의 절충적 형식으로 생겨나면서부터 일반 패션에 영향을 미쳤으며, 상·하의가 분리된 형태(separate)여서 대량생산이 용이하였고, 상황과 취향에 따라 상·하의를 다양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편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쉽게 도입되었다. 또한 20세기 후반 여가문화의 대중화, 캐주얼한 라이프스타일, 다양한 현대사회환경 때문에 상황적 유연성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스포츠패션은 더욱 선호되었으며, 착용자에게 이전의 복장과 새로운 복장의 항목을 결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자주 제공함으로써 디자인 혁신을 안정화시키는데 공헌을 해왔다.[21] 20세기 말 기존의 보편적인 개념을 거부하고 다양한 객체들이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스포츠패션이 TPO개념이나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을 뛰어넘어 단지 착장자의 개성과 감성에 따라 표현되는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한 편의성이 중시되고 있다.

2. 성 정체성의 변화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성 정체성에 대한 관념이 sexuality에서 gender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 정체성을 탈피하여 새롭고 다양한 성 정체성들이 등장하였으며, 스포츠패션에서도 이러한 성 정체성이 반영되고 있다.

1) 중성

패션에서의 중성은 고정된 남성적·여성적 이미지를 모두 배제한 남녀공용의 스타일로 인간 자체의 통합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22] 스포츠패션은 이러한 중성의 이념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패션의 영역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2차 대전 후 수직적 부부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화되면서 여가시 부부에게 어울리는 옷(companion clothes for husband and wife)으로 폴로셔츠, 레인코트 등의 스포츠웨어가 큰 호응을 얻었다.[23] 또한 트레이닝 팬츠, 레깅스, 운동화, 배낭, 스웨츠셔츠 등의 스포츠웨어는 형태, 소재, 디테일에서 남녀간의 차가 거의 없으며, 같은 부위를 치수로 책정할 만큼 남녀 공용의 개념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다.

1960년대 중성적인 스타일을 진보적 시각에서 제안했던 루디 건릭(Rudi Gernreich)은 "남성복과 여성복은 상호 교환적이어야 하며 성의 평등함을 말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유용한 옷이라면 행동을 구속하지 않고 편안해야 한다.[24]"라고 주장하였다. 남녀의 의상에 동일한 형태와 색상을 사용하고 의도적으로 성적 특성을

제거한 그의 중성적인 스포츠패션은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남녀 착용자에게서 미묘한 차이점 즉, 신체 특성에 주목하게 만들었다.[그림 2]

2) 양성성

복식에서의 양성성은 이성의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지니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융합시키는 표현방식으로[25] 남성복의 양성적 스타일과 여성복의 양성적 스타일로 구분되며, 스포츠패션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남성들은 폴로셔츠, 스포츠재킷, 테니스 웨어에서 딱딱하고 어둡거나 무채색의 색상들을 벗어 던지고 다채롭고 화려한 색상들을 선보였으며, 자연스럽게 수용하였다.[26] [그림 3] 또한 여성들은 남성과 여성의 특성 모두에 가치를 두고 이성의 요소들을 자유롭게 조화시킨 양성적인 스포츠패션을 지향하게 되었다. 양성적인 패션을 선보이는 도나 카란(Donna Karan)의 의상들은 스포츠웨어에서 응용한 단품들로 기본 룩을 이루며,[27] 무채색 및 저채도의 색상과 직선적 실루엣의 스포츠 재킷으로 남성적 이미지를 포함하고, 부드럽게 인체의 선을 따라 흐르는 듯한 소재와 신체에 밀착되는 스트레치성 소재나 무용복인 레오타드(leotards)를 응용한 니트 바디 슈트로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28] 양성적인 매력은 그녀의 서브 브랜드인 DKNY에서 보다 자유롭고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림 4]는 나일론 라이크라 소재의 후드 달린 바디 수트의 여성적 이미지와 헐렁한 트레이닝 팬츠의 남성적 이미지가 공존하는 양성적인 스포츠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양성적 스포츠패션은 복식과 신체 간의 성적 특성들이 대조를 이루면서 더욱 관능적으로 인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의 스포츠패션은 부드럽고 밀착되는 여성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남성의 성적 매력을 더욱 강조해주고, 여성의 스포츠패션은 남성복에서 도입한 자연스런 노출과 단순한 형태를 통해 남성적 복식의 요소와 여성의 성적 특성들이 대조되어 여성의 관능적 이미지를 돋보이게 한다. 즉, 대립적인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의 공존은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성적 특성과 관능적 매력을 형성한다.

3. 동경대상의 변화

20세기에 들어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이를 모방하는 패션에서 중심이동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젊음 지향과 영웅주의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1) 젊음 지향

1920년대 이후 "젊음"이 부와 신분을 대신하여 가치관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고[29], 1차대전 후 전쟁으로 인해 엄격했던 생활의 반동으로서 움직임과 스피

[그림 2] 1960년대 후반 Rudi Gernerich의 중성적 스포츠 패션 「The Rudi Gernreich Book」, p.184

[그림 3] Vercase의 양성적 스포츠 패션, 1998.5, p.139

[그림 4] DKNY의 후드 달린 바디 슈트와 트랙팬츠 「WWD」, 1997,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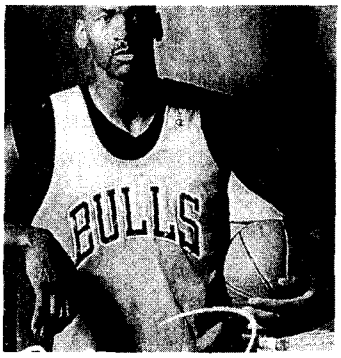
드를 찬미하였으며, 스포츠 선수들이 발산하는 젊음과 역동성을 선망하였다.[30] 60년대 패션계는 대량 생산·소비의 주체로 떠오른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주목하여 그들의 젊음 자체를 상품미학에 이용하였다. 또한 스포츠패션은 스포츠가 지닌 젊은이의 활력과 도전정신을 연상시키고, 활동적인 디자인은 젊음과 상통하는 면이 많아서 젊은이들과 젊음을 지향하는 성인들에게 선호되었다. 또한 젊음 지향은 육체숭배로 이어져 자신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갖도록 한다. 따라서 성인들은 스포츠를 통해 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나, 젊어 보이기 위해 일상에서 스포츠패션을 고집하기도 한다. 오늘날 젊은이 뿐 아니라 중년층까지 스포츠웨어, 청바지, 익살스런 티셔츠, 농구화를 신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31]

젊음 지향과 더불어 20세기말 대중문화의 중심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으로 옮겨가고 패션산업체들은 청소년의 소비력과 영향력에 주목하게 되었다. 미국 대중음악, 영화, 상업 스포츠에 많은 영향을 받은 스트리트 패션들은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와 같이 20세기 동경의 대상은 과거 신분이나 재력을 갖춘 상류층에서 젊음으로 향하게 되었다. 젊은 룩에 최신의 것을 채택하기보다는 젊음과 젊은 모습 그 자체에서 매력을 포착함으로써 발랄하고 해방된 자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2) 영웅주의

1930년대 경제대공황으로 인한 절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스포츠 관람에 열중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는 스포츠를 국가 대항으로 만들었으며, 스포츠 선수들은 전쟁영웅이나 개선장군과 같은 명예를 얻었다. 20세기 후반 스포츠산업과 대중매체의 발달,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덕택에 스포츠 스타들의 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는 이상적 모델이 되고 그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는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대중들은 스포츠 스타의 경기복이나 패션을 모방함으로써 스포츠 스타들의 젊음과 활력, 부와 명예를 공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의 스포츠패션은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비스포츠 영역과 하이 패션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최근



[그림 5] Champion이 상품화한 Chicago Bulls 농구팀의 유니폼을 입은 마이클 조던 「Textile Journal」, 1997. 11, p.264

기업들은 이런 현상에 동조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하여 스포츠 스타들을 통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나이키(Nike)」에서 농구선수 마이클 조단(Michael Jordan)과 테니스 선수 안드레 애거시(Andre Agassi),「휠라(Fila)」에서 농구선수 그랜트 힐(Grant Hill),「아디다스(Adidas)」에서 육상선수 도너번 베일리(Donovan Bailey),「리복(Reebok)」에서 농구선수 샤킬 오닐(Shaquille O' neal)과 같은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32][그림 5]

IV. 현대 스포츠패션의 스타일

20세기 복식에서 중요한 주제였던 과학기술, 성, 대중문화 이 3가지 요소를 토대로 스포츠패션의 스타일을 미래파적 스포츠 스타일, 관능적 스포츠 스타일,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포츠 스타일로 분류하여 그 개념과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1. 미래파적 스포츠 스타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는 의식주 문제들이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해결되면서 확고해졌으며, 1920년대 러시아의 알렉산드라 엑스터(Alexandra Exter), 네데즈다 라마노바(Nedezda Lamanova), 바바라 스테파노바(Vavara Stepanova), 베스닌(Vesnin)형제등은 구성주의와 큐비즘적 미래주의, 그리고 '기능은 대상을 결정한다' 라는 바우 하우스에 영향을 받아서 기

능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계와 같이 명확하고 간결한 선과 형태, 그리고 기하학적인 실루엣과 단순하고 실용적인 의복구성을 통해 새로운 도시생활을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패션을 선보였는데 주로 스포츠웨어와 작업복 등을 디자인하였다.[33][그림 6] 그 후 1960년대 패션계에서 '미래파'로 일컬어지는 앙드레 꾸레쥬(André Courrèges), 피에르 카르뎅(Pierre Cardin), 루디 건릭(Rudi Gernreich)은 건축적 지식을 바탕으로 '우주룩(space look)'을 선보였다. 이들은 비닐과 같은 투명한 소재, 운모 테이프, 금속재료 등의 무탄력성의 광택소재, 그리고 신축성이 뛰어난 스트레치 소재 등과 같이 복식에 사용되지 않았던 소재들과 기하학적 실루엣 등을 사용하였다.[34][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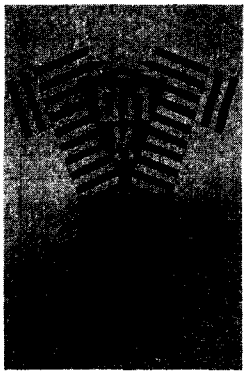
미래파적 스포츠 스타일은 20년대 러시아의 미래파 디자이너들의 의상과 60년대 스포츠 감각의 "우주룩"에 영향을 받아 다음과 같은 미적 특성을 지닌다.

첫째, 명확하고 간결한 실루엣에 벨크로 여밈, 지퍼, 후드, 파우치 등과 같은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기능적인 아이템과 디테일을 디자인 요소로 도입하여 기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헬무트 랭(Halmut Lang)은 단순한 라인과 기능적 요소들을 통해 디자인을 전개하여 주목받는 디자이너로서 [그림 8]의 작품은 스키복이나 등산복에서 사용되는 패딩된 후드, 모터사이클과 같은 격렬한 스포츠에서 충격완화를 위해 착용하는 팔 보호대, 그리고 용이한 착탈과 방한을 위해서 개구부를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벨크로 여밈 등을 디자인 아이디어로 도입한 것이다.

둘째, 금속섬유, 전반사섬유 등과 같은 고기능성 섬유, 하이테크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광택소재 및 비닐 소재, 그리고 감성공학적 소재 등을 이용함으로써 과학기술과 미래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방한용 점퍼인 아노락(anorak)은 다양한 형태와 소재로 디자인되어 대중들에게 널리 애호되고 있는데, 앙드레 꾸레쥬(André Courrèges)는 투명한 비닐소재와 전반사섬유를 이용하였다.[그림 9]

2. 관능적 스포츠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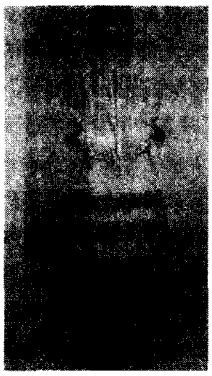
20세기 들어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고정된 이분법적인 성 정체성이 붕괴되어 다양화하면서 수 백년 동안 서양 복식사에서 지속되어온 인공적 구조물들을 통한 관능적 이미지의 표현들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이분법적 성 정체성의 와해는 일상보다 자유롭고 혁신적인 영역인 스포츠활동과 스포츠웨어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되었다. 즉 스포츠는 자연스러운 육체를 신성화하였고, 많은 겉옷과 장식물들을 걷어내어 신체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35] 70년대 피트니스 붐(fitness boom)과 액티브 스포츠웨어를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패션은 스포츠를 통해 가꾸어진 건강미



[그림 6] 바바라 스테파노바(Vavara Stepanova)의 1920년대 스포츠웨어, 「Revolution Costume: soviet clothing and textile of the 1920s」, p.25

[그림 7] 루디 건릭(Rudi Gernreich)의 1960년대 스페이스 룩 「The Rudi Gernreich Book」, p.23

[그림 8] 기능적 아이템을 디자인으로 응용한 헬무트 랭(Halmut Lang)의 작품, 「ELLE」, 1998, p.34



[그림 9] 꾸레쥬(Courrèges)의 미래파적 스포츠 스타일, 「Collection」, 1992, p.143

[그림 10] 1970년대 스포츠패션, 「Fashion of A Decade, 1970s」, p.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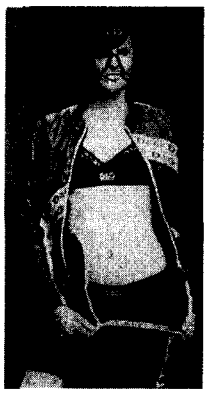
[그림 11] 딕 비켐벅스(Dirk Bikkembergs) bra-top과 tights, 「Fashion News」, vol.27, 1995, p.45

를 자연스럽게 표출하고자 한 예이다.[그림 10]

이를 배경으로 스포츠패션에서 표현되는 관능적 스포츠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은 시대에 따른 관능적 신체부위의 직접적 노출과 인체를 피부처럼 감싸는 간접적 노출을 통해 건강한 관능미를 표현한다.

직접적 노출은 극도로 절제된 장식과 미니멀리즘으로 표현되며, 젊고 건강한 인체미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 노출부위는 관능적 신체부위가 이동함에 따라 변화된다. 30년대에는 '등' 이 선정적인 신체부위였으며, 50년대에는 '가슴', 그리고 90년대에는 '배꼽' 으로 옮겨갔다. [그림 11]은 딕 비켐벅스(Dirk Bikkembergs)의 작품으로 bra top과 tights에 의해 드러나는 원형의 하복부 노출은 배꼽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인간 탄생의 비밀과 관련한 성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D&G는 스킨스쿠버에 사용되는 두께감 있는 스트레칭 소재의 mini skirts에 검정색 직물과 대조적인 흰색을 사용한 긴 앞 지퍼를 사용하여 관능적 이미지를 강조한 의상을 선보였다.[그림 12]

반면에 간접적 노출은 피부에 밀착되는 신축성 섬유들을 사용하여 운동으로 잘 다듬어진 건강한 관능



[그림 12] D&G의 bra-top과 mini skirt 「Fashion News」, Vol.27, 1995, p.140

[그림 13] 1980년대 중반 남성의 관능적 스타일, 「The Men of Fsshion」, p.163

[그림 14] 1980년대 후반의 레이어드 착장법의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포츠 스타일, 「Men's Fashion in Twentieth Century」, p.148

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스키, 스케이트, 사이클링, 육상 등에서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된 신축성 소재 라이크라(Lycra)는 신체에 완전히 밀착되어 인체곡선과 근육의 볼륨감을 강조한다. 라이크라 소재의 셔츠와 타이츠, 그리고 후드 달린 점퍼는 남성의 Y자형 실루엣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13]

3.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포츠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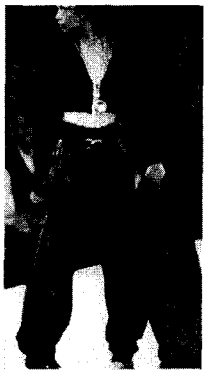
20세기 후반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특성들이 생겨났다. 다원주의에 힘입어서 하위문화들 중 미국 흑인의 문화적 요소들이 대중문화에 흡수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으며,[36] 이들의 문화는 암울한 도시의 거리에서 생성된 음악, 춤, 스포츠로 집약될 수 있다.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포츠 스타일은 스케이트보드, 거리 농구 등의 거리 스포츠와 브레이크 댄스, 힙합 등의 춤에서 파생되었다. 거리 스포츠와 관련한 아메리칸 스트리트 문화는 1950년대 레져와 스포츠의 확산과 더불어 나타난 서퍼들(sufers)에서 시작되었고, 70년대 서퍼를 동경하는 거리의 스케이터들(skaters)로 이어졌다. 스케이터들은 넓은 바지와 그래픽 셔츠, 무릎보호대와 헬멧, 그리고 커다란 브랜드가 보이는 스포츠웨어를 착용하였다.[37] 또한 할렘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거리농구와 프로농구는 농구 선수들의 유니폼과 농구화를 크게 유행시켰다.

한편, 흑인의 거리음악에서 출발된 미국의 대중음악과 춤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문화가 되었으며, 흑인 가수들과 댄서들의 스포츠패션이 확산되었다. 80년대 비 보이즈(B-Boys)들의 트레이닝 웨어 트랙 수트(track suit), 야구모자 등은 90년대 젊은이들의 패션으로 자리 잡은 힙합(Hip-Hop) 의상들로 이어졌다. 이들은 배기진(baggy jean), 카르고 팬츠(cargo pants), 헐렁한 버뮤다 팬츠(bermuda pants), 트랙 수트, 후드 스웨츠 셔츠, 그리고 XL사이즈의 셔츠 등과 같은 액티브 스포츠웨어와 작업복을 주로 착용하였다.[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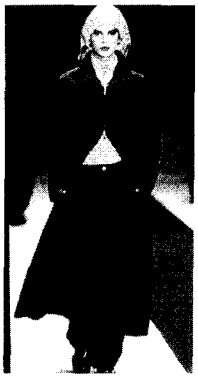
이러한 미국의 하위문화에 근간을 둔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포츠 스타일의 특성은 첫째, TPO개념과 상관없이 오버사이즈의 의상을 레이어드 방식으로 착장함으로써 고전적이고 자연스러운 바디라인을 무시하며, 남녀의 성적 특징을 배제한 남녀 공용의 중성적(unisex) 스타일을 추구한다.[그림 14]

둘째, 액티브 스포츠웨어나 스포츠 팀의 유니폼을 추종한다. 스포츠 선수들의 모방은 스포츠 스타가 누리는 영광, 부, 승리를 대리 충족하려는 신화적 소비이다. 스포츠 선수들의 백넘버, 이들이 속한 대학이나 구단의 로고와 이름, 이들이 광고하는 스포츠웨어의 라벨 등이 외부로 크게 드러난 의상들을 착용하며 옷의 착용 방법이나 형태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그림 15] 디자이너들도 스포츠 유니폼에서 영감을 받아기도 하는데 클로드 몬타나(Claude Montana)는 1982년 봄・여름

[그림 15] MLB의 Detroit 야구팀의 유니폼을 응용한 의상, 「WWD」, 1998, p.27



[그림 16] 꼴티에(Gaultier)의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포츠 스타일, 「Prêt-à-porter collection」, vol 8, 1996.4, p.9



[그림 17] 자넷 하워드(Janet Howard)의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포츠 스타일, 「Prêt-à-porter collection」, vol 8, 1996.4, p.140

〈표 1〉 스포츠패션과 관련된 의식전환 요인의 변화

		특성	
		20세기 전반(1900년대~1950년대)	20세기 후반(1960년대~2000년)
의복가치관의 변화	과시성	① 매력의 과시: 정교하고 장식적인 스포츠 웨어. ② 신분의 과시: 지도층의 스포츠웨어 모방.	① 상표를 통한 부의 과시: 유명상표 선호. ② 기계문명의 과시: 하이테크, 테크놀로지 이미지의 스포츠 패션.
	기능성	① 기능적인 단순함 추구: 바지 착용, 스커트 길이가 짧아짐. ② 스포츠웨어의 직물과 소재를 응용.	① 스포츠웨어의 패션화: 디자인 아이디어로 스포츠웨어의 기능적 요소와 아이템을 도입. ②고기능성 소재와 감성공학적 소재의 이용
	편의성	① 활동의 편의성: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를 비정장의 개념으로 착용. ②관리의 편의성: 세탁과 관리가 쉬운 인조섬유 선호.	① 용도의 편의성: TPO에 적합하도록 조합이 용이한 세퍼레이트 개념. ②개성표현을 위한 편의성: 탈 TPO개념, 의상의 아이템들이 개인의 개성표현과 기호에 따라 재조합됨.
성정체성의 변화	중성	① 남성복식에서 남녀 공용의 스타일을 찾음.	①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제거한 무성적 이미지의 남녀 공용의 스타일 추구.
	양성성	① 남성복식의 요소를 여성복식에 도입	①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 조화와 통합을 거쳐 표현됨 ② 여성복의 양성적 스타일과 남성복의 양성적 스타일로 분리: 남성복에 다채로운 색상, 프린트, 여성적 소재를 도입한 반면 여성복에 저채도, 직선적 라인, 남성적 소재를 도입함.
동경대상의 변화	젊음지향	① 20대의 주도로 젊음지향: 가장된 젊음. ② 패션이 디자이너들에 의해 주도됨.	①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주도: 최신의 것이 아니라 젊음 자체를 추구 ② 스트리트 스포츠 패션이 대중적 패션으로 확산
	영웅주의	① 상류층에서 대중스타로 동경대상의 변화가 일어남. ② 국제경기와 스포츠 중계로 스포츠 스타들이 패션의 리더들 중 하나로 떠오름.	①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 대중매체를 이용한 스타 마케팅으로 스포츠 스타들이 만들어짐. ② 스포츠 스타의 유니폼이나 패션이 모방되고, 비 스포츠 영역과 하이패션에까지 영향을 끼침

프레타 포르테에서 아메리칸 풋볼 유니폼을 이미지화시켜 실크소재에 프린트를 하여 선보였다.[39]

최근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타일에서 아이디어를 구하거나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장 폴 골티에(Jean-Paul Gaultier)는 97~98 추동 프레타 포르테에서 힙합 룩에서 영감을 얻어 소재와 형을 변형시킨 미니 후드 셔츠와 가죽소재의 통이 넓은 트레이닝 팬츠를 선보였다.[사진 16] 쟈넷 하워드(Janet Howard) 96~97 추동 프레타 포르테에서 합성소재를 사용하여 후드 셔츠와 카르코 팬츠를 선보였다.[그림 17]

〈표 1〉은 스포츠패션이 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요인과 스포츠패션 스타일의 개념 및 특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포츠패션과 관련된 의식전환요인을 20세기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V. 결 론

오늘날 스포츠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어 스포츠웨어는 단순히 스포츠를 위한 기능성과 활동성뿐만 아니라 착장자의 개성과 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패션성을 갖춘 스포츠패션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대중적 여가문화의 발전과 확산,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으로써 스포츠 활동의 참여 및 스포츠웨어의 기능적 요소의 도입, 그리고 스포츠웨어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기성복산업과 꾸준히 스포츠패션을 선보이고 있는 파리의 프레타 포르테의 발전 등과 같은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스포츠패션은 그 영향력을 확장해왔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포츠패션은 미적 특성에 따라 미래파적 스포츠 스타일, 관능적 스포츠 스타일,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포츠 스타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의복가치관의 변화, 성정체성의 변화, 동경대상의 변화와 같은 20세기 의식전환요인들은 스포츠패션 스타일들의 미적 특성의 형성 및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첫째, 미래파적 스포츠 스타일은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기능적인 아이템들 및 디테일과 스포츠 감각을 디자인 요소로 응용하며, 테크놀로지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 메세지로써 하이테크 기능과 감각을 가진 소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20세기 의복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즉 신분과 부, 기계문명의 "과시"의 수단으로써 이러한 스포츠패션을 선택하였고, "기능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스포츠웨어의 형태 및 소재의 기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미래파적 스포츠 스타일을 형성하는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편의성"에 대한 요구는 TPO 및 개성에 따라 스포츠웨어의 아이템들이나 디자인 요소들을 자유롭게 응용하고 조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둘째, 관능적 스포츠 스타일은 은폐와 노출을 통한 자연스런 인체미를 강조하면서 신체의 직접적 노출과 간접적 노출로 나타난다. 직접적 노출은 미니멀리즘에 근거를 두며, 노출부위는 당시의 관능적 부위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에 간접적인 노출은 피부처럼 인체에 밀착되는 신축성 섬유를 사용함으로써 관능적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는 과거 이분법적 성 정체성이 와해되어 다양한 성 정체성으로 분화되고 수용됨으로써 스포츠패션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성적 특성이 배제된 남녀공용의 "중성"은 스포츠패션의 무성적 스타일을 통해 남녀 양성간의 미묘한 성적 특성에 주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성성"은 남성 스포츠패션에서 신체에 밀착되는 여성적인 소재와 다양한 색감을 사용하고, 여성 스포츠패션에서 남성복의 단순한 형태와 자연스러운 신체노출을 시도함으로써 남녀 양성의 관능적 매력들이 대비되어 더욱 강조되었다.

셋째,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포츠 스타일은 흑인들의 거리 스포츠와 춤에서 발생되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특징은 오버사이즈의 헐렁한 옷과 레이어드 방식을 통해 인체의 고전적 형을 무너뜨리고, 스포츠 스타들의 경기복이나 패션을 모방한 스타일로 나타난다. 이는 "동경대상"이 젊음과 스포츠스타로 변화되면서 거리의 춤과 스포츠에서 파생된 스타일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디자인의 아이디어로 응용되었다. 즉 "젊음"에 가치를 두고 최신의 것을 택하기보다는 젊음 그 자체에서 매력을 느낌으로써 젊음의 활기와 자유로움을 지닌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포츠 스타일이 연령과 TPO개념을 넘어 호소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스포츠산업과 대중매체의 발달,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덕택에 스포츠 스타들은 20세기 새로운 "영웅"이 되었고, 이들이 착용하거나 광고하는 액티브 스포츠웨어와 유니폼을 추종하는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포츠 스타일은 스포츠 스타들의 부와 명예를 공유하고 싶은 동경에서 출발되었다.

이와 같이 스포츠패션은 단순히 스포츠웨어의 기능적 요소나 스포츠 감각의 디자인 요소를 피상적으로 도입 · 응용한 일시적 패션 현상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사회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미의식을 반영하는 하나의 복식현상이다. 그러므로 스포츠패션에 대한 연구는 개인들의 가치관 및 생활양식을 비롯한 미의식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패션 트랜드와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관련 자료가 대부분 미국의 자료에 의존되어 미국적인 시각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복식에 편중되어 남성의 스포츠패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연구의 일관성과 명료성을 위해 스포츠패션과 각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의복가치관의 변화, 성 정체성의 변화, 동경 대상의 변화라는 3가지 범주로 규정하고 각 스포츠 스타일과의 1대1의 대응관계로 분석하였지만, 스포츠패션은 그 외 여러 의식전환의 요인과 상호 복합적으로 연관되었다. 따라서 스포츠패션에 관한 자료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지할 수 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자료, 그리고 남성복에 나타난 스포츠패션에 자료를 보다 확보하여 분석한다면 연구의 타당성과 효용성이 보다 더 증대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Gilles Lipovesky, 이득재 역「패션제국」, 서울: 문예출판사, p. 202, 1999.

2) 강석연, "레져 ·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여성 테니스웨어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이승무, "스키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박정화, "스키복의 디자인과 기능성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3) 정재희, "20세기 여성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이영민,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4) 노혜은, "1960년대 High Fashion에 나타나는 Sportive Fashion", 장안논총, 12권.
정정미,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5)「Textile Journal」, 서울: 섬유신문사, p.118, 1996. 3.

6) Charlotte Mankey Calasibetta,「Fairchild' s Dictionary of Fashion」, Fairchild Publication, p. 545, 1988.

7) 라사라 교육개발원,「복식대사전」, 라사라 출판사, p.735. p.738, 1995.

8) 노혜은, "1960년대 high fashion에 나타나는 Sportive Fashion", 장안논총12(1992. 3), p. 851.

9) 정정미, op. cit., p. 9.

10) 라사라 교육개발원, op. cit., p. 735.

11) Richard Martin,「All American: Sportswear Traditional」, New York, F.I.T, p. 10.

12) 박진경, "20세기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여성 스포츠의 발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7, 1998.

13) Marilyn J Horn, Lois M. Gurel 저,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의복: 제 2의 피2부」,도서출판 까치, p. 136, 1994.

14) Maggie Pexton Murray지음, 채금석역,「패션세계입문」, 서울: 경춘사, p. 212, 1998.

15) Ibid., p. 247.

16) 김문겸,「여가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53－54, 1993.

17) 윤혜진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여가 특성과 패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73, 1997.

18) 안광호 · 황선진 · 정찬호,「패션마케팅」, 수학사, p.186, 1999.

19) 삼성패션연구소,「fashion forum」, 1996. 10/vol 40, 28－29.

20) 1946~1964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들로써 출생률이 점점 감소하는데서 유래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걸쳐 지속된 평화와 경제호황시기에 태어나 자랐으며, 케이블 TV와 퍼스널 컴퓨터를 접하면서 성장.

21) 이영민, op. cit., p. 65.

22) 채수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80, 1988.

23) Karyne Anspach「The Why of Fashion」, The Iowa State Univ. Press, p. 327, 1967.

24) Peggy Moffit and William Claxton,「The Rudi Gernreich Book」, New York, Rizzdi, p. 20, 1991.

25) 김경옥, "현대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8, 1995.

26) Gilles Lipovtesky, op. cit., p. 80.

27) 김용선, "아메리칸 케주얼웨어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52, 1994.

28) 손보경, "현대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양식 연구", 서울여자대학 석사학위논문, p. 41, 1997.

29) 채금석, op. cit., p. 439.

30) 이미숙, "Chanel 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1, 1998.

31) Gilles Lipovestky, op. cit., p. 170.

32)「섬유저널」, 섬유저널사, p. 152, 1998.7.

33) Tatyana Strizenova,「Revolution Costume: Soviet Clothing and Textile of the 1920s」, New York , p. 4.

34) 채금석,「현대복식미학」, 경춘사, p. 237, 1995.

35) Gilles Lipovesky, op. cit., p. 104.

36) 강현두 역,「대중문화와 고급문화」, 삼영사, p. 168, 1997.

37) Ted Polhemus,「Street Style」, Thames and Hudson, p. 86, 1994.

38) 이지현,「힙합의 발전에 따른 힙합패션의 발생과 변천」, 복식 46, p. 11.

39) 김창준,「Fashion Business」, 라사라 출판사, p. 36, 1990.